

宗論

3세에서 9세 선조先祖의 설단

지난 5월 24일에 가진 2019년 정기총회에 말미에 서 권해욱 회장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 안동 권문門의 최대 숙원사업이 되는 3세에서 9세 선조의 설단에 대한 동의를 만장일치로 이끌어 내셨다.

3세(諱 冊)에서 9세 선조를 모실 설단은 100만 족친들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는데 이런 숙원을 올해 정기 총회에서 시원스럽게 풀어 주셨다. 100만 족친들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추진 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무심히 지낸 일을 결의해 주셨다.

특정 천년 세월이 100만 족친으로 융성해 졌다.

한문을 같이 쓰는 우리나라 성씨는 320개쯤 된다. 이 가운데 신라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안팎.

안동권씨가 이들 신라 성씨를 제외하고 11번째 100만 족친으로 변영한 것은 바로 특성 초기의 어려운 시대를 이룩했던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힘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변영과 영광이 없었을 것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적이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안동권씨 최대 최고 현안이었다. 청도 남중공 단소는 안동 시조소 능동제사 옆에 설단 됐다. 청도 묘소 이전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조와 아드님이 천년 만에 조석朝夕으로 만나시고 춘추항 때마다 따뜻한 상을 받게 되어서 100만 족친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변영하는 대중회

권해욱 회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두해가 지났다. 출범 당시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대중회는 신임 권해욱 회장의 투명한 리더십으로 안정을 찾았다. 취임 초 100만 족친들에게 약속했던 대중회 재정 문제도 적자에서 흑자 살림으로 돌아왔다. 오늘 현재 8천만 원을 남겨 저축을 해두고 있는 등 살림살이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했다.

더욱이 정보宗報의 활성화를 통해 100만 족친에게 소통을 길을 열었다.

위탁판매를 직영체제로, 편집시스템을 편집국장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으로는 지역종친회와 전국과 종회의 협조를 얻어 독자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 판매 수익이 크게 늘어서 대중회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대변신, 대 개혁을 두고 모두들 놀라운 경영실적이라 리더십이라고 평가 했다.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서명운동

대외적으로는 천년 역사를 남을 큰일을 이끌었다. 역사 바로 세우기다.

“권을 도원수의 행주대첩”기념행사를 국가행사 격상 서명운동은 100만 족친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을 벌였다. 2019년 3월 14일에 가진 “제426회 행주대첩제”에 앞서 지난 1월엔 문중 대표 1만 명이 서명한 10권의 서명부를 들고 문화상 국회의장과 청와대를 방문해서 직접 전달했다.

권해욱 회장은 10권의 서명부를 제출하고 나서 물러설 분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권을 도원수의 행주대첩 기념제”가 국가행사가 되어야하는 정당성, 이유를 설명드릴 기회를 찾고 있다. 임기 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00만 족친들의 자존심을 걸고 이 일만은 꼭 성사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 청강靑岡 회장의 출발했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지금 것 이어지고 있다.

평창 학림공 공적비 건립

오는 11월 16일(음력 10월 20일) 안동 능곡 시조와 남중공 추향에 참석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평창공 학림공은 100만 족친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조 묘소를 찾고 가꾸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선고先考이시다. 두 분의 행적을 기록한 비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올 추향 때쯤이면 능동제사 길 신도비神道碑 옆 빈터에 공적비가 세워져 대중회 주관, 수감교유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중회는 공적비公蹟碑의 건립을 위해 지난 3월엔 안동사무소에서 전국과종회를 열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지난 달 24일에 가진 대중회 정기총회는 ①3세에서 9세 선조의 설단 ②적자살림을 흑자로 돌린 대중회의 경영개선 ③행주대첩 국가행사 격상 서명운동 ④평창 학림공 공적비 건립 등 안동권문 최대 현안들이 풀린 중요한 총회였다.

아쉬웠던 점은 총회 진행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있었다. 노소와 항렬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대중회 정기총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욕에 티가 났으나 관용하는 원로 족친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지난 2년간 청강靑岡 권해욱회장을 옆에서 지켜본 족친들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적인 리더십을 가졌다고 말한다. 세수여든을 훨씬 넘긴 분이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올까. 감탄하는 분이 적지 않다. 편집위원장 권오신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인택) 제15차 임시총회가 5월 17일 오전 11시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운곡서원에서 개최하였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13개과 회장, 부회장 등 3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했다.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 회장협의회의 회원들은 운곡서원(雲谷書院) 내 경덕사(景德祠)에서 좌운공과 봉산재 권혁근 운영위원장의 집례로 권인택 회장이 분향하는 등 알묘(諷廟)를 마치고 운곡서원 앞에서 단례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운곡서원은 시조 태사공을 주벽(主壁)으로 모신 유일한 서원이며 동, 서벽엔 조선 6대 임금이었다던 단종 사화 때 순절하신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와 병조 예조 정랑 필마절제사를 지낸 귀봉공(龜峰公) 권덕린(權德麟)을 배향하고 있다. 이 운곡서원은 안동시 서후면 능골의 시조 묘소에 이어 안동권씨의 성지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서원에서 알묘를 마친 회장단은 회의장에서 각 과 회장들이 돌아가면서 자신과 부회장들을 소개하였으며 권인택 회장도 관계동. 권기덕 두 협의회 고문을 소개하였다.

곧 이어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국민의례, 시조묘소 참배, 상음례를 하였다. 이어 권인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조 태사공 위패가 봉안된 운곡서원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다”고 말하고 “8년전 협의회를 발족한 이후 이번이 열다섯 번째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회에서 권도원수수 제례 격상을 위한 서명



운동을 받아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오는 추향제때 평창공, 학림공 기념비 제막, 부산에서 제3회 안동권씨전국청장년회체육대회 등도 각 과 회장이 있어서 뒷받침이 되었다”고 말했다. 권혁근 운영위원장은 권혁근 운영위원장은 운곡서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회장단이 이곳을 찾아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오신 좌운공과 회장은 “좌운공과의 증원이 4만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경주에 살고 있고 경주에서 이씨, 손씨, 최씨 다음으로 사성을 받은 안동권씨가 네 번째 위치에 있으며 의병장이 6명이 나와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다. 권계동 협의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치랑동 협의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치랑동 2011년 8월 안동 장자방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후 8년 동안 15회에 걸쳐 회의를 갖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감개무량하다”고 회고한 후 “안동권씨 안에 많은 회(會)가 있지만 파종회장협의회는 권문

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의 사무부총장은 시조묘소, 남중공단소, 삼태사촌, 추향사 때 현관이나 재유사를 원하는 종원들은 파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운영위원장과 좌운공과 봉산재 권혁근 운영위원장은 운곡서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회장단이 이곳을 찾아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오신 좌운공과 회장은 “좌운공과의 증원이 4만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경주에 살고 있고 경주에서 이씨, 손씨, 최씨 다음으로 사성을 받은 안동권씨가 네 번째 위치에 있으며 의병장이 6명이 나와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다. 권계동 협의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치랑동 2011년 8월 안동 장자방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후 8년 동안 15회에 걸쳐 회의를 갖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감개무량하다”고 회고한 후 “안동권씨 안에 많은 회(會)가 있지만 파종회장협의회는 권문

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의 사무부총장은 시조묘소, 남중공단소, 삼태사촌, 추향사 때 현관이나 재유사를 원하는 종원들은 파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운영위원장과 좌운공과 봉산재 권혁근 운영위원장은 운곡서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회장단이 이곳을 찾아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오신 좌운공과 회장은 “좌운공과의 증원이 4만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경주에 살고 있고 경주에서 이씨, 손씨, 최씨 다음으로 사성을 받은 안동권씨가 네 번째 위치에 있으며 의병장이 6명이 나와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다. 권계동 협의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치랑동 2011년 8월 안동 장자방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후 8년 동안 15회에 걸쳐 회의를 갖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감개무량하다”고 회고한 후 “안동권씨 안에 많은 회(會)가 있지만 파종회장협의회는 권문

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의 사무부총장은 시조묘소, 남중공단소, 삼태사촌, 추향사 때 현관이나 재유사를 원하는 종원들은 파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운영위원장과 좌운공과 봉산재 권혁근 운영위원장은 운곡서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회장단이 이곳을 찾아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오신 좌운공과 회장은 “좌운공과의 증원이 4만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경주에 살고 있고 경주에서 이씨, 손씨, 최씨 다음으로 사성을 받은 안동권씨가 네 번째 위치에 있으며 의병장이 6명이 나와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다. 권계동 협의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치랑동 2011년 8월 안동 장자방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후 8년 동안 15회에 걸쳐 회의를 갖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감개무량하다”고 회고한 후 “안동권씨 안에 많은 회(會)가 있지만 파종회장협의회는 권문

총회를 마친 회장단은 30km 떨어진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북편에 있는 “돌고래회식당”으로 이동, 권종호 회장이 푸짐한 물회로 점심을 한턱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회장단은 20km 떨어진 포항시 송도동 크루즈선착장으로 이동했다. 포항도심을 운행하는 크루즈가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한 번 승선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회장단은 크루즈 선착장을 출발, 운하를 따라 죽도시장~동빈내항~송도해수욕장~형상강~포항운하관까지 약 10km의 물길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40분이 소요되었으며 승선요금만 할인해서 1인당 1만원이다. 처음엔 크루즈라고해서 운항하는 배들의 규모가 큰 줄 알았는데 정원이 20~50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들이다. 운하에 교량이 많은 데다 운하폭이 좁아서 큰 배가 다니지 못해 지형에 맞추어 소형배가 다니고 있다.

같이 10km의 운하와 바다를 따라 가면서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조형물, 횃집, 죽도시장, 해양경찰선, 퇴역한 포항함(초계함), 등대, 포스코 등을 볼 수 있었고 아름다운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크루즈 여행을 끝낸 회장단은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안동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되돌아가는 일부 회장단은 천안함과 똑같은 퇴역한 포항함(초계함) 내부를 둘러보고 아울러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영덕어촌민속전시관’도 관람했다.

(보도부장 권영진)

추밀공파 이사회 및 회장단 협의회 개최

추밀공파 종회의 이사회 및 회장단협의회가 지난 4월 30일 11시 서울교대 정문 앞 두부촌에서 권오돈 회장 등 40여명의 이사 및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권경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회의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조에 대한 낭독, 상음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권경일 사무처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권경석 전임 회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추밀공파 명의의 통장 등에 대해 권오돈 회장으로 명의 변경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권오돈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할 일이 많고 바쁘신데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거론되는 안건에 대해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권오돈 회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정간공 영정 봉안 문제에 대해 상정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정간공 및 4시(始)에 관



권오돈 회장(오른쪽 첫번째)

련된 선조들의 영정 봉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 데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거론되는 안건에 대해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권경석 전 회장은 “8년 임기를 다 하러 왔으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되어

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발의한 지가 벌써 3년만 도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권경석 전 회장은 “8년 임기를 다 하러 왔으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되어

가 있다. 조상을 위해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올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권혁성 전 회장 역시 “회비를 모금하는 데는 강제로는 할 수 없다. 그에 걸맞는 명분과 설득이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의공계 권동원 상무는 “추밀공파 회관을 건립한다는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모금 방법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각 지역별로 방문해서 회원들과 회합을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행부와 회장단 및 참석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에 참석자 전원은 회관 건립이라는 큰 취지에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다. 앞으로 준비된 점심을 함께 한 후 산회했다.

(편집국장 권행원)

2019년 부정공파종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

부정공파종회(副正公派宗會, 회장 권병운·사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안동시 육사로(운흥동) ‘만남의 뷔페’ 지하 1층 연회장에서 ‘2019 기해년 회장단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기승 종손을 비롯하여 권용주 고문,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등 부산, 대구, 안동, 영덕, 문경, 영천, 의성, 청송 등지에서 60여명의 참석하였다.



인 5월에 종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특히



은 운영위원들이 자리를 같이해 좋은 회의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권기승 종손은 격려사에서 “오늘 좋은 안건이 나와 원활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재규 총무는 지난 3월 31일 오이재(烏耳齋)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춘향제에 권용주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주요 활동

은 운영위원들이 자리를 같이해 좋은 회의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권기승 종손은 격려사에서 “오늘 좋은 안건이 나와 원활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재규 총무는 지난 3월 31일 오이재(烏耳齋)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춘향제에 권용주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주요 활동

(<보도부장 권영진>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01-0235-6546-41(안동권씨 대중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중회